

코로나 대유행 초비상...유럽 다시 빗장

각국 하루 수만명씩 확진

네덜란드 전국 봉쇄령

영국도 찬반격론 속 고심

영국발 입국 속속 제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유럽이 다시 봉쇄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인구가 6700만여명인 영국은 19일(현지시간) 8만 28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오미크론 변이는 1만2133건이다. 러시아(인구 1억4230만여명)는 하루 사망자만 123명을 기록했다. 러시아는 지난 10월 16일 이후 매일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6800여만명)도 5만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이탈리아(6240여만명), 독일(7990여만명), 폴란드(3810여만명), 네덜란드(1730여만명)는 1만~2만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들 국가의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는 작년 초 코로나19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우려를 산다. 이 같은 대유행에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특색뿐만 아니라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도 한몫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공중보건이 계속 악화하자 유럽은 다시 극단적인 방역 규제인 봉쇄조치 카드를 꺼내고 있다. 네덜란드는 이날부터 다시 전국적인 봉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비필수 상점과 술집, 식당,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은 내달 14일까지 문을 닫는다. 학교도 내달 9일까지 방학에 들어갔다. 시민이 자택에 초정할 수 있는 손님 수는 크리스마스인 오는 25일을 제외하고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영국도 전면 봉쇄를 검토하고 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부 장관은 이날 BBC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전 봉쇄 조치를 배제할 수 있는 질문에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선 그것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지금 시점엔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더 선은 크리스마스 후에 실내 모임 금지, 식당·펍 실내석 운영 금지, 상점 수용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다시 생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은 영국과 영국령 일대를 오미크론 변이 지역으로 지정, 20일 0시부터 영국에서 독일로 열차나 버스, 선박이나 여객기를 통한 승객 운송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독일 국적자나 독일 내 거주지와 거주 허가가 있는 이들과 동반가족, 외교관, 국제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는 예외다.

앞서 프랑스도 19일 0시부터 영국발 입국 규제를 강화했다. 영국에서 출발해 프랑스로 들어오려면 필수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입국할 수 없다. 단,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국적자는 예외로 한다. 또 프랑스 파리는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취소하고, 노상 음주도 규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의 간격을 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덴마크도 극장, 공연장, 놀이공원, 박물관을 폐쇄했다. 아일랜드에서는 저녁 8시 이후 술집 문을 닫는다. /연합뉴스



중국 후베이성 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중국 후베이성 어저우시에서 지난 19일 고속도로 회전교차로 교량 상판이 옆으로 무너져내리고 그 위를 달리던 차량이 뒤집어진 채 널브러져 있다. 현지 언론은 전날 이 교량 상판이 갑자기 전복되면서 화물차 3대가 추락하고 아래 있던 승용차가 깔리면서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필리핀, 태풍 '라이'에 208명 사망·52명 실종

239명 부상·30만명 대피

관광지 보호서 최소 74명 숨져

슈퍼급 태풍 '라이'가 필리핀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청은 태풍 라이로 인해 지금까지 사망자 208명이 나왔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올해 필리핀을 지나간 여러 태풍 때문에 발생한 인명 피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와 함께 적어도 239명이 다치고 52명이 실종됐으며 30만명 이상이 집을 떠나 대피했다고 경찰청은 덧붙였다. 또 현지 언론에 따르면 300만명이 정전 피해를 봤다.

유명 관광지인 보홀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보홀 주지사인 아서 얀 페이스복을 통해 적어도 7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남동부 다나가트

섬도 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풍 라이는 지난 16일 남부 민다나오 북동부의 관광지인 시아르가오섬에 최대 풍속 시속 195km로 상륙했다. 미국 태풍경보센터(JTWC)에 따르면 라이의 최대 풍속은 시속 259km에 달해 슈퍼급으로 분류됐다. 이후 남부와 중부 지역을 지나면서 폭우를 뿌려 여러 마을이 침수되고 나무와 목조 건물 등이 유실됐다. 필리핀 재난 당국은 군경과 소방대원 등을 동원해 피해가 큰 지역에서 인명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필리핀은 매년 평균 20개 안팎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농작물 유실과 가옥 파손 등 피해가 끊이지 않는 나라다. 2013년 11월에는 대형 태풍 '하이엔'으로 무려 7300여 명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됐다.

한편 기상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갈수록 태풍의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칠레 대선서 35세 좌파 후보 보리치 당선

결선서 극우 카스트 꺾어

내년 3월 최연소 대통령 취임

학생운동 지도자 출신의 35세 젊은 좌파 정치인 가브리엘 보리치가 차기 칠레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2년 전 칠레를 뒤흔든 대규모 시위에서 표출됐던 변화를 향한 열망이 정권교체로 이뤄졌다.

19일(현지시간) 치러진 칠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좌파연합 '존엄성을 지지한다'의 후보로 출마한 보리치는 약 55.9%를 득표했다. 극우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55) 후보(득표율 44.1%)에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지난달 1차 투표에선 카스트가 27.9%, 보리치가 25.8%를 각각 얻었는데, 보리치가 결선에서 역전에 성공했다. 개표 초반 일찌감치 승패가 갈

리자 카스트 후보는 곧바로 패배를 인정하고, 보리치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했다.

보리치 당선인은 내년 3월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의 후임으로 취임해 4년간 칠레를 이끌게 된다. 취임일 기준 36세로, 칠레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된다. 이날 투표율은 55%를 웃돌아 의무 투표제 폐지 후 치러진 선거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보리치는 역대 가장 많은 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된다고 라데레세라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그는 승리가 굳어진 뒤 지지자들 앞에 서서 "모든 칠레 국민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보리치 당선인은 칠레 남단 폰타아레나스 출신으로, 칠레대 재학 중이던 2011년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시위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 한 명이다. /연합뉴스

민주진영 불참 홍콩 입법회 선거 역대 최저 투표율

중도파 후보도 모두 패해

90석 모두 친정부 진영 차지

민주진영이 불참한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중도파 후보들도 모두 패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SCMP는 "잠정 집계 결과 10개 지역구에 출마한 중도성향 혹은 친정부 진영이 아닌 후보 11명 전원이 큰 표차로 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선거제) 정비로 개편된 입법회의 전체 90석이 모두 친정부 진영 후보 차지가 됐다"고 전했다.

중국에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기조로 홍콩 선거제를 전면 개편한 이후 지난 19일 실시된 첫 입법회(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30.2%를 기록했다. 시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 20명, 관련 업계 간접선거로 뽑는 직능 대표 의원 30명, 선거인단(선거위원회)이 뽑는 의원 40명 등 총 90명의 의원을 뽑는 주요 선거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총 153명의 출마자 중 자신을 중도파라고 홍보한 후보 1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정부·친중 진영 후보다. 범민주진영에서 자력심사위원회 설치와 직선출의석수가 35석에서 20석으로 축소된 것 등에 반발해 아무도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특히 홍콩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입법회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후 처음이다.

주요 민주진영 인사들이 대부분 2019년 반정부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 투·개표일인 19일 바르나버스 핑과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홍콩의 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범민주진영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유권자들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30.2%의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시위와 관련해 기소되거나 실형을 살고 있는 데다, 출마를 희망해도 정부 관리들로 꾸려진 자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야권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뽑을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친중진영에서는 야권과 경쟁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만큼 입법회 선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홍콩 언론은 풀이했다. 이로 인해 이번 선거는 당선자보다는 투표율에 관심이 쏠렸다.

친중 진영 15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뽑는

의원 선거만 98%의 높은 투표율 속에서 이날 오전 3시에 일찌감치 당선자가 발표됐다. 직능 대표 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32.2%를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은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게 한 입법회 선거를 친중 진영 후보들이 휩쓸었다"며 "일각에서는 낮은 투표율이 입법회의 정통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미국으로 도피한 홍콩 민주운동가 서니 청은 로이터에 "대부분의 홍콩인들이 세상에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고자 의도적으로 선거를 보이콧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